

광양 화물차 주차장, 야적장 둔갑 '말뚱'

운송업체가 철 작업장으로 버젓이 사용

트레일러는 인근 산단부지에 불법 주차

광양지역 한 물류 운송 전문업체가 대형 화물차의 주차장 부지를 철 야적장으로 이용해 말뚱이다.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R사는 트레일러와 트랙터 등 66대를 보유한 포스코 공로 운송사로 공장부지 6093㎡ 중 3470㎡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며 화물차 주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설치확인을 얻은 뒤 영업중에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트레일러의 주차 공간을 작업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근 A사가 개발해 분양을

앞둔 산업단지에 불법으로 주차해온 것으로 드러나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R사는 A사가 산업단지 부지내 진입을 막기 위해 진입로에 쇠줄이 설치했는데 이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20여대의 트레일러를 불법 주차해 왔다. R사 관계자는 "인근 산단부지내 일부 부지가 개발전 회사 소유로 돼있어 주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지 개발자가 누군지 몰라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진입로 쇠사슬은 누가, 언제 훼손했는지 모르겠다"며 해명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R사의 경우 규정



포스코 공로 운송사인 R사가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에 맞게 차고지 설치 신고가 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정된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것은 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 말했다.

한편 2011년말 광양시에 등록된 트

레일러와 특수 화물차는 1310대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을 세워 추진했지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만 화포해변서 일출보고 소원 톺어보세요

한국관광공사 1월 가볼만한 여행지 선정

“순천만에서 해돋이를 보며 추억을 낚다!”

순천만 화포해변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일출보고 소원도 톺고’라는 테마로 추천하는 2012년 1월에 가볼만한 여행지로 선정됐다.

순천만 화포해변은 순천만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광활한 갯벌과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에 위치한 웅산 전망대에 오르면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의 S자 물길을 따라 배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순천만은 지난 5월에 세계적 여행안내사인 ‘미슬렐 그랜드 가이드’로부터 한국 여행지 최고 점수인 별 세 개를 받은 국내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전남-경남 멸치잡이 또 갈등 빛나

경남어민들 “전남해역 조업구역 규정 불인정” 소송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민들이 전남 해역에서 멸치를 잡을 수 없도록 규정된 수산업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 수산인협회에 따르면 경남지역 멸치잡이 일부 어민들이 조업구역을 규정한 전남 수산업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2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전남 수산인협회는 “그동안 도 경계선 안에서 멸치를 잡는 것이 관례였고 많은 어민들이 이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경남지역 어민들은 낚시하며 조업구역을 침범, 최근 수개월

사이 해경 등에 적발된 것만 2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수산인협회는 “경남지역 어민들은 2010년 10월 순천지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상에는 조업구역 경계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판결은 경계선 규정이 아니라 조수 이동 불가피하게 조업구역을 넘어갈 수 있는 침범에 대해 법적 관용을 베푼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업법상 전남과 경남의 조업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것은 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새얼굴

“지역주민 위한 공감 치안 펼칠 것”

김치중 고령경찰서장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 자세의 역동적인 경찰활동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치안상태를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치중(57) 고령경찰서장은 “지역주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눔과 공감치안을 전개하겠다”며 “도덕성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활력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중심·현장중심의 치안활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출신인 김 서장은 순경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해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광주경찰청 정보통신 담당관, 함평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윤유숙(58)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강중기자 gjju@

보성경찰 지역민 곁으로 릴레이 사랑 봉사

아동센터 등서 컴퓨터 수리 등 지원



보성경찰서(서장 노재호) 직원들이 사랑의 릴레이 정보통신 봉사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27일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조성면 ‘예담 지역 아동센터와 보성읍 ‘보성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컴퓨터 수리를 비롯해 악성코드·바이러스 점검 등 정보통신 지원활동을 펼쳤다.(사진)

특히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아동 60여명이 이용하는 예담 지역아동센터와 보성 지역아동센터내 컴퓨터와 인터넷은 그동안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시스템 충돌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

박경순 예당지역아동센터장은 “보성경찰이 컴퓨터를 고쳐주어 방학동안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말했다.

장필순 보성지역 아동센터장은 “컴퓨터가 있어도 설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직접 설치해주고 점검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강조했다.

노재호 서장은 “앞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정보통신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전 북

전북대 정읍캠퍼스 건립 찬반 논란

유성엽의원 “사이트랩 위해 필요” 市 “재정 부담” 난색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비즈니스벨트 지역거점연구단지(사이트랩 · Site-Lab) 유치에 위한 조건인 ‘전북대 정읍캠퍼스’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유성엽(정읍) 국회의원은 “최근 정읍 발전과 사이트랩 유치를 위해 전북대 정읍캠퍼스 건립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정읍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하지 않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앞서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정읍캠퍼스 건립 찬성(58.5%) 의견이 반대(25.6%)보다 많았다”며 전북대, 전북대, 정읍시가 협업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라고 제안했다.

시의회 정일환 의원도 “정읍시가 캠퍼스 건립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읍시 김영길 부시장은 “캠

퍼스 유치는 원칙적으로 찬성 지지한다”면서도 “설립 타당성, 실현 가능성,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고 정읍시, 전북대 등과 숙고해야 하는데 정작 시와 시민 대표인 시의회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대에서 정읍캠퍼스 건립에 대해 시와 어떤 협의를 하지 않았고,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건립비(250억원)의 시 부담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사이트랩’은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설립하는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50개 예정) 중 분원에 속하지 않은 외부 연구단으로, 현재 카이스트를 비롯한 40곳이 확정돼 나머지 10개를 놓고 전국 광역단체가 경쟁 중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넘이를 감상하고 있다. 구시포 상가번영회는 31일 해넘이 행사를 연다. (고창군 제공)

해맞이·해넘이 전북에서 즐기세요

김제·고창·군산·정읍 등 행사 준비 다채

전북지역에서 다사다난했던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다양한 해맞이·해넘이 행사가 펼쳐진다.

31일 오후 4시부터 노을이 아름다운 고창군 구시포 해안에서는 ‘새로운 변화 다함께 비상을 꿈꾸며!’를 주제로 7080 록밴드 공연, 액운을 태우고 희망을 비추는 모닥불 점화, 소원문을 넣은 풍등 날리기, 불꽃 쇼 등이 펼쳐진다.

김제시 진봉면 거건리 해안에서는 일몰에 맞춰 불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금산사 해넘이 법회’가 열린다. 오후 10시부터 전주 중남문에서는 시민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야 축제가 열린다. 풍물 길놀이, 민요·가요 공연에 이어 ‘제야의 종’이 울리면 시민들이 불꽃놀이와 함께 소망을 적은 풍등을 날리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한다.

군산시는 새해 1일 오전 5시30분부

부랑면 벽골제에서는 시민 1000명이 오전 6시부터 새해맞이 행사를 한다. 이와 함께 첫날 아침 일찍 곤돌라를 타고 두주 덕유산 향적봉에 오르면 일출을 보며 새해소원을 빌 수 있다.

이 밖에도 정읍 내장산, 완주 모악산, 남원 봉화산, 임실 국사봉 등에서 소망 기원하기, 떡 절단, 신년 만세 합창 등을 진행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서울·전주 장학숙 입사 학생 213명 선발

전북도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과 전주에 운영하는 장학숙에 입학 학생 213명을 선발한다. 도는 내년 1월3~31일 ‘서울 장학숙’(108명)과 ‘전주 장학숙’(105명) 입사 희망자로부터 원서를 받아 2월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서울 장학숙’은 수도권 지역의 4년

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내에 있거나 도내 고교를 졸업한 자로, 신입생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백분위 평균 기준으로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재학생은 평균 B 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063-280-2936)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주 한지산업 지원센터 ‘ISO 9001’인증 획득

개관 1주년을 맞은 전주 한지산업 지원센터가 ACE 인증원으로 부터 ‘ISO 9001’인증을 획득했다. ‘ISO 9001’은 품질경영 시스템으로서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에 대응해 고객의 요구가 품질로 구현되는 조직역량의 함양을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표준규격이다. 한지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최초 한지전문 시험인증 기관으로 KOLAS(한국인정기구) 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 농기센터 농촌지도 전국우수기관 선정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가 최근 농촌진흥청 주관의 전국 농촌지도기관 종합평가에서 ‘농촌지도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센터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원에 특작과확원·국립 종자원 등과 MOU체결 및 재증단지 운영을 비롯해 ▲전

국 최초 자원순환형 녹색식범마를 육성 ▲품목별 전문기 양성 1 품목 책임담당제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일 소장은 “농촌진흥청조직의 역량을 총 동원해 작지만 강한 농업, 꿈과 희망이 있는 김제농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시 자체감사 통해 市살림 53억 절감

남원시는 올해 자체감사와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5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225건의 건설공사·보조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로 9억 4000만원을 절감했으며, 예정가격 및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시사

를 통해 42억6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사회복지시설 등 21개 기관에 대한 종합·재무감사에서 250여건의 업무 개선사항을 지적해 94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정읍 농산물 산지유통 참여주체 협약식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마케팅이 이뤄진다. 정읍시는 지난 23일 행정, 농업, 산지유통회사, 생산자 단체 등 1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농산물 산지유통 참여주체 협약식’을 가졌다.

이런 협약에 따르면 농산물 산지유통창구로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내년도 신설해 정읍농산물 유통, 통합마케팅, 유통시설 운영 등을 맡기로 했다. 회사는 지역 대표농산물에 ‘단풍마인’ 브랜드를 붙여 대형유통업체 등에 판매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 백골제 오감만족 농촌체험 인기

김제시 부량면에 자리잡은 벽골제 관광지가 짚풀공예와 민속놀이 등 각종 농촌프로그램 체험장소(사진)로 인기를 끌며 사계절 오감만족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27일 김제시에 따르면 벽골제 관광객이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워크숍 개최, 겨울방학 특별학교 운영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

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공무원 30여명은 최근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과 벽골제(국가사적 111호)를 탐방하고 인기를 끌며 사계절 오감만족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 겨울방학을 맞아 벽골제 명인학당은 지난 26일부터 10일간 ‘방과후 특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